

익산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마한생활

‘제55회 익산마한문화대전’ 10월 3~5일 서동공원·마한박물관 일원서 개최

제55회 익산마한문화대전이 특별한 체험으로 개관절 연휴 나들이객의 발걸음을 끌어당기고 있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3~5일 금마면 서동공원과 마한박물관 일원에서 마한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한문화대전은 1969년 시작된 익산군의 마한민속제전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올해 55회로 시작한다.

이번 축제는 ‘한(韓)문화의 발상지 익산, 슬기로운 마한생활’이라는 부제를 달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마한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한반도 서쪽인 현재 경기도 충청, 전라 지역에 있던 소국연맹체다. 중국 역사서에는 ‘고조선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 바닷길을 통해 한의 땅에 와서 한왕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준왕이 정착한 곳이 바로 현재는 익산시에 속한 금마 지역이다.

한문화 발상지 익산은 고조선에서 마한, 백제로 이어지는 역사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이 같은 역사를 기반으로 익산에서는 백제왕도 익산을 주제로 하는 서동축제가 5월에 열리고, 이와 차별화한 마한문화대전을 별도로 개최한다. 최근에는 한문화 발상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민의 눈을 개전절인 10월 3일로 변경하기도 했다.

올해 마한문화대전은 고종에 기반해 마한의 전통 제천의식을 재현한 ‘소도제’를 시작으로 포문을 연다. 개막식에서는 변경 후 처음 맞이하는 익산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새로운 비아이(브랜드 아이덴티티) 선포식이 함께 열린다.



제55회 익산마한문화대전 포스터

여러 소국으로 이뤄진 연맹국가 마한의 특색을 반영해 △마한생활존 △마한음식존 △마한문화존 등 주제별로 축제장 구역을 나눴다. 관람객들은 구역별 테마에 맞게 마한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

우선 마한을 쉽게 배우며 알아가는 2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좌인도 잡아갈 수 없는 신성한 땅 마한 소도에서 펼쳐지는 미션형 게임 ‘소도 유인작전 RPG’가 그 중심에

있다.

또 마한인 모습을 재현해 보는 의복, 문신, 장신구, 상투 체험이 준비돼 있다. 마한인의 일상 생활을 들여다보는 집 만들기, 불 피우기, 고기 굽기, 토기 만들기, 활쏘기, 공방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역사문화 축제에 걸맞는 연계 학술행사도 진행된다. 사전 포럼으로 10월 1일 ‘한문화의 발상지 학술포럼’이 고도 한문애 익산세계유산센터에서 열린다. 또 10월 4일 오후 4시에는 ‘특별콘서트’로 잘 알려진 역사 전문가 최태성 강사의 강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마한박물관에서는 ‘마한인 의식주 관련 유물 특별전’을 통해 당대 유물 30여 점을 전문가 해설과 함께 선보인다. 전국 마한 동요제와 어린이 사생대회,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익산 무형유산 공연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도 통해 준비한 다양한 볼거리도 가득하다.

시는 많은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축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소한 서동공원 주차장 대신 미륵사지와 공설운동장, 왕궁리 유적, 서동생태공원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5~20분 단위로 셔틀 버스를 운영한다.

정철을 익산시장은 “대한민국 4대 고도인 익산의 위상은 백제를 넘어 고조선·마한까지 아우르고 있다”며 “익산이 전국적인 마한 문화 선진지로서 발돋움하도록 익산 마한문화대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진안홍삼축제서 만나는 중평농악·용기 문화

진안중평농악·진안고원형용기장 공개 시연회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진안중평농악과 진안고원형용기장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열리는 2024 진안홍삼축제에서 특별한 공개 시연회를 진행한다.

진안중평농악 ‘마이산 사랑굿’은 10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공연하며, 진안고원형용기장 ‘진안고원형용기와 글로벌(Global+Local) 진안’은 축제기간 동안 상설 전시된다.

진안중평농악은 진안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농악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진안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이산의 신비로움과 전통적인 중평농악의 웅장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무대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안고원형용기장의 전통 용기 제작 시연과 상설전시도 홍삼축제 기간 동안 진행된다. 진안의 오랜 전통을 잇는 용기장은 조상들



의 지혜가 담긴 기술로 진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용기 문화를 선보인다.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용기 제작 과정은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색다른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진안의 대표 축제인 진안홍삼축제 기간 동안 전통 문화와 홍삼의 효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진안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건강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3대 대표 가을 축제 ‘임박’

10월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홍부제·남원문화유산 야행 개최

남원시에서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전역을 축제로 물들일 2024 남원시 3대 대표 가을 축제가 6일 앞으로 임박했으며, 축제의 개막식은 10월 4일 18시에 사랑의 광장에서 류지광, 소유미 MC 진행으로, 바다, 이보람(씨아), 에메랄드 캐슬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낼 예정이다.

남원시 3대 가을 축제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2회 홍부제 △2024 남원문화유산 야행이 10월 3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먼저 남원시가 신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펼쳐지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은 로봇을 첨가한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으로 확장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하며 △국제드론·로봇 레저스포츠대회 △드론·로봇 전시 체험 & 컨퍼런스 - 2024 남원 드론공연체험 페스티벌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등 4가지 테마로 꾸며진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기 초·중·고 전국 드론축구대회, 국가대표급 비보인 대회 등 드론·로봇 체험, 멀티 드론쇼, 김태연, 엔플라잉, SG워너비 등이 출연하는 개막축하 공연 등 색다른 볼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제32회를 맞은 올해 홍부제는 ‘홍부제와 함께 대박 나세요’를 주제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사랑의 광장과 요천 일원에서 열리며, 특히 올해는 홍부제의 본고장인 남원만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마켓형 축제로 거듭나 정체성을 강화한 축제 콘텐츠 등



이 다채롭게 선보여질 예정이며, 기념행사를 비롯해 공연, 체험 행사 등을 홍부존, 놀부존 도깨비존, 제비존 4개의 테마 구획으로 나누어 꾸며지며, 자세한 사항은 축제기획팀(620-6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문화유산야행은 관현루 창건 신화인 달나라 궁전을 재현해 옥황상제, 견우와 직녀, 토끼와 거북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한 문화유산 야간 탐방 프로그램으로 5회째를 맞은 올해는 ‘공한청허부, 달나라 궁전으로 초대’를 주제로, 나흘동안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광한루원을 비롯해 요천 월궁광장 등지에서 펼쳐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오는 10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전통과 첨단을 함께 즐기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순창 옥천골·섬진강 미술관 기획전시

순창군이 오는 10월 두 개의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순창공립옥천골 미술관 전시실에서 ‘형성화-순창전’이 열린다.

‘순창 나들이 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는 93년 이종섭미술상 수상자 권순철 작가와 어반스캐치 작품으로 유명한 이미경 작가를 포함한 2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10월 8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두 번째로,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순창 공립 섬진강 미술관 전시실에서 ‘캘리그래피로 마음을 열다-글씨의 온도’가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글씨의 온도’라는 주제로, 순창군 군민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캘리그래피 동호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개관 행사는 10월 2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두 전시회 모두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골 미술관(063-650-1638)으로 문의할 수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 포럼 열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27일 왕의지미술에서 유니크베뉴 활성화를 위해 전북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리로, 재단과 전북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모여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북 유니크 베뉴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 △전북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네트워킹 △4개 분과위원장 선임식 등이다.

전국대학교 서병모 교수가 ‘유니크 베뉴 활성화 방안’이라는 특강을 통해 전북이 가진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또한 ‘얼라이언스 회원사 네트워킹’에서는 기존 61개 사에 추가 선정된 10개 사가 참여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은 전북자치도



를 글로벌마이스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과 마이스 산업을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글로벌마이스육성지원센터(063-230-7469)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